

6 왜 변협은 변호사 수 감축을 주장하는가?

→ 기존 회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목적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은 구실일 뿐,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후배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를 저지하고자 함. 변협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음.

- ① 변호사시장이 포화상태다
- ② 법조인양성제도 유사한 일본보다 한국이 변호사가 많다

※ 변협 주장에 대한 반박

① 변호사시장이 포화상태다?

- 변호사의 공급은 증가했으나, 그만큼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수요가 창출되었음.



② 유사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보다 한국이 변호사가 많다?

1) 아래처럼 한국은 설치기준 등이 엄격하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으므로 다름

구분	일본	한국
설치기준	준칙주의	인가주의
교육시설기준	보통	엄격
설치학교	35개	25개
입학정원	지율	통제
법학부	존치	폐지
예비시험	있음	없음

2) 한국이 인구는 적지만, 소송사건이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1만 명당 법조인 수에 비해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오히려 부족

구분(단위 : 명, 개)	일본	한국
인구(2022 기준)	12,534만명	5,162만명
법조인 수	44,805	31,974
변호사 수	40,066	25,383
인구 1만명당 법조인 수	3.52	6.20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	3.15	5.01
소송사건수	3,360,756	6,679,233
검찰고소고발접수건수	10,426	512,533

일본변호사연합회 타니(谷) 사무총장曰

“일본은 소송사건 없어서 변호사 줄었다.” - 2022. 8. 31. 법전협 간담회 중

7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합격을 제고를 통한 사법개혁 추진 목적 달성

-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
 -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세계적 경쟁력과 다양성 갖춘 법조인 양성
- '21년 법률서비스 5억 5,410만 달러 무역적자(출처 : 한국은행) 극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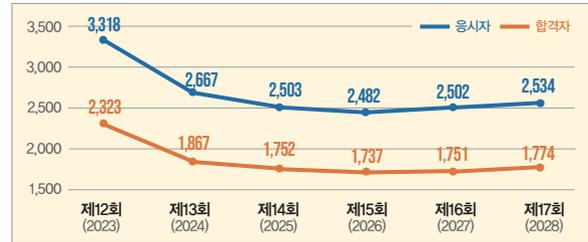
■ 자격시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최소 70% 이상 합격 필요

응시자대비 합격률	구분	제12회 (2023)	제13회 (2024)	제14회 (2025)	제15회 (2026)	제16회 (2027)	제17회 (2028)
70% 합격	응시자	3,318*	2,667	2,503	2,482	2,502	2,534
	합격자	2,323	1,867	1,752	1,737	1,751	1,774
	불합격자	995	800	751	745	750	760
80% 합격	응시자	3,318*	2,352	2,207	2,222	2,267	2,320
	합격자	2,654	1,881	1,765	1,777	1,814	1,856
	불합격자	664	470	441	444	453	464

* 3,318명-3,644명(2023년 변호사시험 출원자 수)×9%(최근 3년 평균 출원자 수 대비 응시자 비율)

자격시험화되려면 응시자대비 70% 이상 선별해야 안정화된다.

〈70% 합격인 경우, 응시자 및 합격자 수 추이〉 (단위: 명)



〈80% 합격인 경우, 응시자 및 합격자 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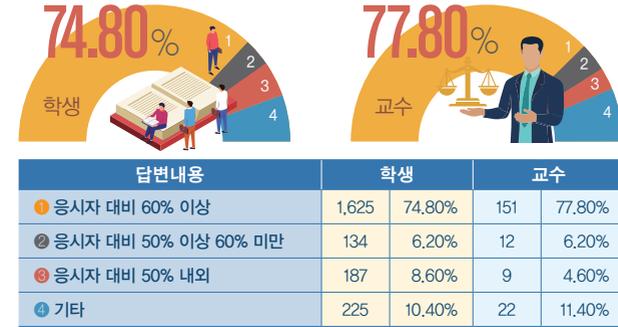
→ 차회 변시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 70~80%로 할 경우 현재의 응시자 적체를 해소가능함. 2027년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 적체 해소되어 현재 합격자 결정 인원으로도 자격시험화 가능.

로스쿨 교육 당사자들의 합격을 제고 요청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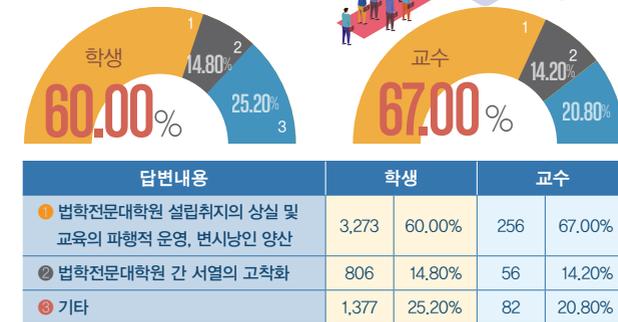
(출처 : 오수근 등,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20)

1.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시험화 할 경우에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면 귀하는 합격률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 요구비율〉



2.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거나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법전원 설립취지, 법조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70% 이상 보장해야함"

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합격률 2% 사법시험에 의한 법률귀족, 개천룡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접근성 높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 도입
나이가 수험에만 매몰된 고시촌 수험생이 아닌 **다양한 경험·
전공자에 의한 전문화·국제화된 양질의 법률전문가 양성 목적**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따라서 로스쿨 졸업생들이 보게 되는 변호사시험은
그 본질 자체가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

2 로스쿨 제도

로스쿨 입학정원

25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함(로스쿨법 제7조)
→ 2,000명

로스쿨 교육의 질 관리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 법학교육위원회 설치인가,이행점검	- 로스쿨평가위원회 로스쿨 인증 평가	- 변사관리위원회 변사 합격자 결정

로스쿨 제도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과정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따라,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심의)

3 로스쿨 입학전형·엄정한 학사관리· 학비부담 경감지원책

입학전형시 범으로 다양성 보장

비법학사	타교출신	취약계층	지역인재
1/3 이상	1/3 이상	7% 이상	5~15%

엄정한 입학전형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측정하는
시험 실시.
법학적성시험(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성적과 학부성적, 공인외국어
능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정량평가(LEET, 학점, 외국어)요소별 실질반영률 및 환산방법 공개

*정성평가(서류, 면접)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하여 시행 중

치열하고 공정한 선발, 엄정한 학사관리 및 졸업 절차

법학적성시험	'23학년도 14,620명 지원, 13,193명 응시
공정한 입학전형	입학정원 2,000명, 로스쿨 원서접수 경쟁률 5.23:1
엄정한 학사관리	'16~'21 학사경고 1,496명, 유급 389명
법조윤리시험	'22년 합격률 96.19%, 2,128명 중 81명 불합격
엄격한 졸업사정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연 3회 및 자체 졸업시험 실시
변호사시험	기존 변사 합격자수, 합격률, 로스쿨 도입취지 ,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등 종합적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다양한 직업진출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

학비부담 경감 및 장학금 지원 확대

※국공립대(10개교) 등록금 동결, 사립대 등록금 13% 인하

※국고 장학금 확대 : '16년 37억 원 → '22년 65.9억 원

※든든한 장학금 지원 : 295억원 - 학교부담 229억원(77.6%),
정부지원 65.9억원(22.4%)

→ 각 로스쿨은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 장학금 편성하고, 그 중
취약계층 장학금 70% 이상 지원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소득구간별 장학금 지원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1구간	소득 2구간	소득 3구간	소득 4구간	소득 5구간	소득 6구간
등록금 100% 이상 (생활장학금 적극 권장)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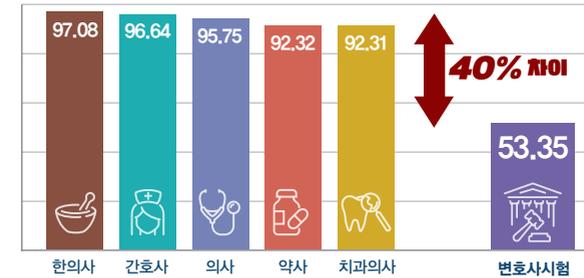
4 교육을 통한 국가시험의 합격률 비교

다른 교육 양성제도의 국가시험들은 합격률 90% 이상인
자격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음. 오로지 법조인양성제도인 로스쿨에서의
변호사시험만이 합격률 50% 정도에 그치고 있음

〈교육을 통한 양성제도인 시험들의 합격률(2022년 기준)〉

구분	응시자수	합격인원	합격률	비고
한의사 국가시험	753	731	97.08%	한의대, 한의전
간호사 국가시험	24,175	23,362	96.64%	간호대
의사 국가시험	6,043	5,786	95.75%	의대, 의전
약사 국가시험	1,993	1,840	92.32%	약대
치과의사 국가시험	767	708	92.31%	치대, 치전
변호사시험	3,197	1,712	53.55%	로스쿨

(단위: %)



※한국 로스쿨 제도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
미국 로스쿨은 자격시험화가 정착되어 변협(ABA) 승인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Bar exam)의 합격률이 한국보다 높음

[참고] '21년 미국변협(ABA) 승인 로스쿨 출신자들이 1,500명 이상 응시한
주요주들의 변호사시험(Bar exam) 합격률

(단위: 명.%)

관할지역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New York	7,364	5,511	74.84%
Massachusetts	1,668	1,209	72.48%
Washington DC	2,654	1,867	70.35%
Texas	4,055	2,793	68.88%
Pennsylvania	1,718	1,110	64.61%
California	5,940	3,822	64.34%
Illinois	2,546	1,586	62.29%
Georgia	1,564	928	59.34%
Florida	4,464	2,495	55.89%
New Jersey	1,735	919	52.97%
총계	33,708	22,240	65.98%

5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 취지 퇴색

변호사시험 합격률 추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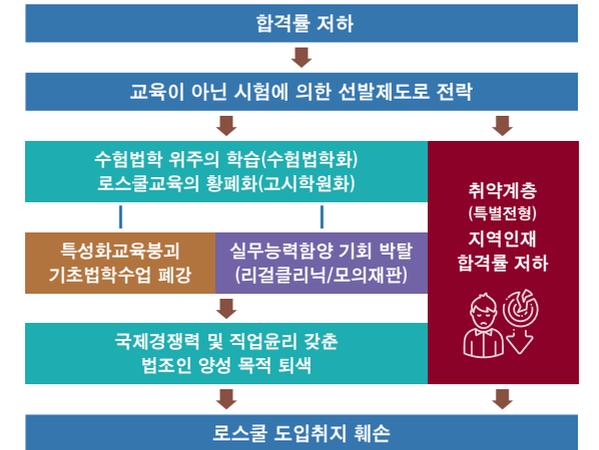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3,156	3,197
합격자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1,712
합격률	87.15	75.17	67.63	61.11	55.20	51.45	49.35	50.78	53.32	54.06	53.55

→ 합격률 급락

제1회 변사	제11회 변사
87.15%	53.55%

※사실상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 아닌 선발시험으로 운영, 통제

변호사시험 합격률 급락의 문제



→ 로스쿨 정책의 취지 퇴색: 취약계층, 지방인재 변사 합격률 저하



- 특별전형 입학생(8기)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33.6%에 불과
- 지역균형인재 입학생(8기)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35.9%에 불과
- 오탈자 급증